

◇말기 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심장이식술의 중기 성적

이재익, 김경환, 이정렬, 김기봉, 안혁, 김용진, 노준량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배경 및 목적 : 심장이식은 말기 심부전환자에게 확정적인 치료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 병원에서 시행된 22례의 심장이식 환자의 조기성적과 추적경과를 분석함에 있다.

방법 : 1994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 22례의 동소심장이식이 시행되었다. 그 중 17명이 남자, 5명이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40.5 ± 11.7 세였다[12세~56세].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 뉴욕심장협회 기능적 분류상 3군 혹은 4군에 속했다. 술전 진단에 있어서는 13명의 환자가 확장성 심근병증, 4명의 환자가 판막성 심질환, 3명의 환자가 제한성 심근병증이었으며, 비후성 심근병증, 허혈성 심질환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장기 공여자의 평균 연령은 24.2 ± 9.2 세[8세~46세]였으며 뇌사의 원인으로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액형은 15명의 환자에서는 수혜자와 공여자간에 일치하였고, 6명에서는 적합하였으나, 1명에서는 부적합하였다. 수술에 있어서는 상대정맥 및 하대정맥을 각각 연결하는 방법을 19명에서, 우심방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3명에서 사용하였다.

결과 : 공여심장 허혈시간은 145 ± 41 분[93분~220분]이었으며, 병원 사망은 3례[14%] 있었다. 사망 원인은 사이클로스포린 유발성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1례, 대동맥 문합부위의 가성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연성 대량 출혈이 1례, 거대세포바이러스성 감염이 1례 있었다. 생존하는 환자들의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29 ± 19 개월[1개월~4년 5개월]이었으며, 2례[9%]의 만기 사망이 있었다. 거부반응이 의심되는 한 명의 입원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뉴욕심장협회 기능적 분류상 1군에 속하였다. 병원 사망을 포함한 만기 생존률은 1개월, 6개월, 2년, 4년에 각각 95%, 81%, 74%, 74%였다.

결론 : 심장이식은 말기 심부전환자에서 적절한 사망률과 성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책임저자:김기봉(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발표자:이재익(서울대병원 흉부외과)